

문화/생활 >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인천 온다

1월 31일 '문화바람' 첫 번째 콘서트

이영우 기자 | minpresso@hanmail.net

1021 승인 2006.01.11 17:23:13 Tweet 0



지난 달 15일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대표 이영우)가 올해 첫 번째 공연으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중요콘서트 '노래야 나오나라'를 개최한다.

백창우씨는 시인이자 음악인, 프로듀서로서 1966년 불 뚫집 음반 <시인/인생> 발표 이후 20여년간 네권의 시집과 13장의 작곡집, 20여 장의 중요음반을 출간했으며 198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전용 음반사 산살계를 만들어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를 보급하고 있다. 어린이 노래모임 '굴렁쇠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모임으로 각종 공연과 전래동요, 창작동요 음반작업에 참여해 왔다.



백창우(좌)와 굴렁쇠 아이들

오는 31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콘서트 '노래야 나오나라'는 그동안 주로 음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린이들의 삶과 접사 가 담긴 노랫말과 가락으로 사랑을 받았던 '똥지 피어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어깨동무 씨종자' 등 주목할만한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삼짇날' '백구' '따오기' 등 어른들이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들도 함께 해 부모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따뜻한 콘서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관객들이 직접 공연을 선정하고 유치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수용자운동'인 문화바람 첫 공연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최경숙 사무국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바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수용자운동"이라며 "문화바람의 첫 공연인 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바람이란 할 일정책의 화제를 내고 일상의 공연, 전시회 등을 유지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번 '노래야 나오나라' 중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1년 동안 5차례의 문화바람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의 관람료는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 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3, 4월 2주
할인혜택 행사!

인천공연!!

일시 2006.5.23~b.6 평일 8시/토,일,공휴일 4시,7시
장소 남구학산소극장 기획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예약문의 032.442.8017 http://www.peopleart.org

event1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기 예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공연 관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가열, 나열, 알파벳부터 중간까지)

event2 예매를 하시는 모든 관객분들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3명 예매시 : 80,000원, 4명 예매시 : 100,000원
5명 예매시 : 120,000원. *참고, 일반 기준.)

event3 예매시 연인,친구,가족 등 함께 오시는 분들과 나눌 **사연**을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공연 중 배우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 부터 6월 7일 까지)

event4 '문화바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드리는 소정의 선물과 회원전용 프리티켓(Free Ticket) 2매를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문화바람 회원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기획한 **모든공연**을 **80%할인**하여 프리티켓(Free Ticket)을 이용 무료관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매월 1만원을 납부하는 문화바람 회원들의 **일일**의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 휴미 미납 및 연세시 프리티켓(Free Ticket) 사용이 정지됩니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입니다. 내용은 위쪽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00] 000 000 00 0000. 0000 00 10 000 000000 0000 000 000 0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000, 000000 000 0000 0000 00 000.

0000 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 <0000>0 0 00 0 0000 <000000000 0>0 000. 00000 000000 000 00, 000 000000, 00000 0 00000 00000 00, 0 0, 00000 00000 00000. 0, 000 00000 00 000 00 00000000 00000 00 000. 0 00 00000 0000000 00 "0000"0000 0000 0000 00.

2006000 2016000 <00000000000>0 000 000 00 0 10000 00 000000, 000 0 00000 00, 000 00000 00, 00 000 000 00000000 00000.

00. H 00 00000 0000 000 000 00 00 00 000 00 0000.



[00]000000 0000 00 00000'0000'. 00 0000 0 1000 0000 00000, 0 0 8400 000000.





[00]H0 00 000 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 0 0 000 000 000000.



[00]000 0000 200 0000 00000 00000 000 0000. 00 0 00000 00, 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00 90 150 0000 0000. (00, 00000000 0000 210000 00000) 0000000 0000 0000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김경원(kim kyeong won)

2024년 10월 10일